



해수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세계해사대학교 문성혁(61) 교수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7일 해수부를 포함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기용됐다. 문 장관 후보자는 한국인 최초로 UN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 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문 장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후 현대상선 1등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UN 산하 세계해사대학(WMU)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면 해운산업 재건, 어촌과 수산업 발전, 신해양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 공히 해양강국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3월 2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며 4월 2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협운해운, 마성훈 대표이사 사장 등 7명 임원인사

협운해운그룹은 4월 1일자로 마성훈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마성훈 협운그룹 계열사 전체 대표이사 사장
- △장한암 협운그룹 계열사 전체 상임고문
- △김성국 협운스톨트항운(주) 본사 촉탁상담역
- △박금춘 협운해운(주) 울산사무소 상무이사
- △전재홍 (주)협운인터내셔널 부산사무소 상무이사
- △김성운 (주)협운인터내셔널 본사 상무이사
- △정대인 협운스톨트항운(주) 본사 이사

해양수산부 감사관에 임현철 전 항만국장

해양수산부는 3월 13일자로 감사관에 임현철 전 항만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성기 단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3월 6일자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단장에 정성기 부이사관을 승진임명했다.

한중훼리, 지희진 대표이사 취임



(주)한중훼리 제3대 지희진 대표이사가 3월 4일 취임했다. 이날 서울 미근동 본사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식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회를 겸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지 사장은 무엇보다 (주)한중훼리를 출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기를 희망한다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 임직원들에게 회사는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지 사장은 회사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으며, 공사를 구분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발 벗고 나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세방(주) 신임 대표이사에게 최종일 영업본부장

세방(주) 최종일 영업본부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995년 세방에 입사한 최 신임 대표이사는 인천지사장, 수도권지역본부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영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에 이성근 조선소장 선임

대우조선해양은 3월 29일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성근 조선소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성근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는 1979년 대우조선공업 입사 이후 선박해양연구소장, 미래연구소장, 중앙연구소장, 기술총괄, 조선소장 등을 역임한 생산/기술분야 전문가로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경영정상화 기간(2015~현재)동안 조선소장으로서 현장 안정화, 주요 프로젝트의 적기 인도 등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4월 1일 취임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독자경영의 역량을 갖출 것이라며, "DEME 자존심 회복 속제를 기필코 완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성근 신임 대표이사 주요이력〉

- 1957년생
- 경기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학사), 미국 뉴욕대 금속공학과(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융접공학과(박사)
- 1979년 대우조선공업(주) 입사
- 2004년 선박해양기술연구소장(상무)
- 2008년 미래연구소장(전무)
- 2013년 기술총괄
- 2015년 조선소장(부사장)

해운물류학회 신임 회장에 정태원 성결대 교수

한국해운물류학회는 3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정태원 성결대 교수를 선임했다.

현대상선 배재훈 대표이사 선임

“화주입장에서 새롭게 접근, 글로벌 톱클래스 기틀 마련”

현대상선의 신임 대표이사에 배재훈 전 범한판토스 대표가 선임됐다.

현대상선은 3월 27일 연지동 사옥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재훈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배재훈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회로부터 CEO 후보자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현대상선을 방문해 임원진들과 상견례를 마친 후 해운업계 시장상황 등 경영여건을 살펴보고 현안을 파악해 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물류회사 CEO를 6년간 성공적으로 역임한 물류 전문가로서 영업 협상력·글로벌 경영역량·조직 관리 능력 등을 겸비했다”며, “고객인 화주의 시각으로 현대상선의 현안들에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경영혁신 및 영업력 강화를 이끌고, 글로벌 톱클래스 해운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재훈 대표이사는 1990년 LG반도체 마케팅 담당을 거쳐 1997년 LG반도체 미주지역 법인장, 2004년 LG전자 MC해외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범한판토스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배재훈 현대상선 신임 대표이사 프로필〉

△1953년 대구 출생 △고려대 전자공학 △1990년 LG반도체 해외 마케팅 담당 부장/이사대우 △1997년 LG반도체 미주지역 법인장/북중남미 지역 담당 상무 △2000년 LG전자 Mobile부문 북미 법인장 상무/부사장 △2004년 LG전자 MC사업본부 전략지원 및 해외마케팅 담당 부사장 △2008년 LG전자 동남아 지역 담당/싱가포르 법인장 겸임 부사장 △2009년 LG전자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 마케팅 부사장 △2010년 LG그룹 판토스 대표이사 사장 (~2016.1까지)△2014년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회장 △2016년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본부장/특임교수/부총장/전임교수

CJ대한통운, 새 대표이사에 CJ(주) 박근희 부회장

CJ(주) 박근희 부회장이 CJ대한통운의 신규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CJ대한통운은 3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박근희 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박근태 이사장을 재선임하는 의안을 승인했다.

YGPA, '19년도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월 1일부로 조직개편과 함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YGPA는 주요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본부 1실 11팀 1사업소인 조직을 2본부 4실 9부 1사업소로 개편했다. 중장기 전략과 미래 사업간의 연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핵심 업무에 별도의 9개 팀을 운영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또한 일자리창출 등 정부 정책의 이행을 위한 '사회가치부',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혁신성장부', 총괄적인 안전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보안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항만운영팀을 '물류전략실'로 확대, 변경하고 제3투기장 재개발 등 혁신 선도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건설계획부'를 신설했다.

〈승진〉

- ◇ 2급 △경영지원팀 정하수 △여수사업소 고우권 △기획조정실 이병홍
- ◇ 3급 △기획조정실 주성구 △물류단지팀 남철희 △항만개발팀 우공제
- ◇ 4급 △경영지원팀 송찬욱 △재무회계팀 허은정 △항만운영팀 오동훈
△글로벌마케팅팀 이윤옥 양서준 이영은 △여수사업소 박경민 정해성
△항만시설팀 이재승
- ◇ 5급 △감사팀 최진혁 임성구 △인재육성팀 최익현 △경영지원팀 박지훈 이주영 김민주 김지성 △가치경영팀 박여진 △항만운영팀 김정은
△글로벌마케팅팀 구광림 △여수사업소 배수현 △항만개발팀 엄상현
△항만시설팀 조윤석
- ◇ 6급 △기획조정실 서지은 △재무회계팀 이수은 양대송
△미래사업팀 김예민 △항만운영팀 정휴상 이지선 △물류단지팀 이성진
△글로벌마케팅팀 안세인 김선화 △여수사업소 김정록
△재무회계팀 권재현 △항만개발팀 황인호 김동해 △항만시설팀 유영진

〈부서장 전보〉

- ◇ 1급 △감사실장 윤동훈 △기획조정실장 김한춘 △물류전략실장 유충호 △건설계획부장 최상현
- ◇ 2급 △경영지원부장 서휘원 △재무회계부장 임형윤 △사회가치부장 장방식 △혁신성장부장 정기철 △물류단지부장 선정덕 △마케팅부장 백정원 △안전보안실장 조성래 △항만건설부장 고영찬
△항만시설부장 김민구 △여수사업소장 이상목

팬스타그룹, 광인섭 대표 등 신규임원 4명 선임

팬스타그룹에 광인섭 전 한중웨리 대표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팬스타그룹은 4월 1일부로 신규 임원 4명을 선임하고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광인섭 대표이사는 그룹 항운사업 총괄 겸 (주)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겸 (주)팬스타트리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아울러 강병수 그룹 최고정보책임자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겸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대표, 우성욱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이사, 김민선 (주)팬스타라인닷컴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이사가 선임됐다.

〈신규 임원〉

△그룹 항운사업 총괄 · (주)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 (주)팬스타트리 각자 대표이사 광인섭 △그룹 최고정보책임자 CIO 겸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대표 강병수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이사 우성욱 △(주)팬스타라인닷컴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이사 김민선

천경해운, 직원 22명 승진인사 단행

천경해운은 4월 1일부로 직원 2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류원선(서울 수출영업팀) 박정윤(서울 전산팀) 이준동(서울 해외영업팀) 정원철(상해사무소) 한재석(서울 재무관리팀) 부장 5명 외 17명

고려해운, 안익현 부사장 승진 등 임원인사

고려해운은 3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안익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 △전무→부사장 : 안익현(컨테이너영업부 총괄)
- △상무→전무 : 정현용(영업전략부 총괄)
- △부장→상무 : 이상우(일본법인장)

장금상선, 금창원 대표이사 사장 임명

장금상선은 3월 1일부로 금창원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구현철 부사장을 한성라인 대표이사 사장 겸 장금상선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KMI, 승진 전보 인사 단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3월 1일자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선임연구위원 김범중, 김형근 △연구위원 마창모, 박한선, 임경희, 한광석, 현대송 △부연구위원 박성준, 신철오, 이기열, 최지현, 최희정, 한기원 △전문연구원 기해경, 강호녕, 김주현, 김지혜, 문석란, 이기영, 이정아, 전우현, 좌미라 △전문사무원 김금미, 김미정, 김진경

〈보직발령·전보〉 △연구기획·협력실장 최영석 △해양수산통계센터장 박광서 △혁신성장연구실장 전형모

해항회 14대 회장에

이용우 전 KOEM 이사장

해운·항만 부문 전직 공무원 단체인 해항회가 3월 21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4대 신임 회장으로 이용우 전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했다.

